

# “‘뽕’ 뜨는 기분 알아, 강박관념 있었다”

## 씨엔블루 앨범 ‘블루밍’ 발표

### 멤버 전원 작사·작곡 참여

“대뷔 초 정말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 그때 그게 영원할 줄 알았죠. 그때는 감사함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용화)

최근 한 카페에서 만난 밴드 씨엔블루의 리더 정용화는 데뷔 당시의 폭발적 인기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속앓이를 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지난 2009년 일본 인디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한 씨엔블루는 2010년 1월 첫 미니 앨범 ‘블루토리’(Blue-tory)를 발표하며 한국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그리곤 데뷔 2주 만에 타이틀곡 ‘외톨이야’로 음악방송 1위를 거머쥐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너무 화려한 데뷔 탓에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했다.

정용화는 6집 미니 앨범 ‘블루밍’(BLUEMING)에서 특별히 애착이 가는 곡이 있느냐는 질문에 “슬럼프 때 쓴 곡들을 나중에 들어보면 지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영 포에버’(Young Forever)를 꼽았다.

정용화는 “대뷔 2주 만에 1위를 차지하고 큰 사랑

받았을 때의 쾌감을 안다. 이전 그 정도만큼 반응이 오지 않으면 쾌감이 오지 않는다”면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만큼 반응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힘들더라”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아마도 떠난 팬들만 생각하니 그랬던 것 같다”면서 “그동안 곁을 지켜준 팬들에게 감사하게 되더라. 팬들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했다. 계속 발전하고 변화해야 영원할 수 있던 생각에서 쓴 곡이 ‘영 포에버’라는 것.

‘영 포에버’는 정용화의 자작곡으로 후반부에 나오는 멤버들의 합창과 함께 브릿팝적인 구성으로 편안하면서도 가슴 파듯한 음악을 선사한다.

또 이번 앨범 타이틀곡 ‘이렇게 예뻐나’를 정용화가 작사·작곡한 것을 비롯해 멤버들이 세 앨범 수록곡 전곡의 작사·작곡에 참여, 뮤지션으로서의 재능을 선보였다.

그러나 자작곡에 대한 양면적 감정도 드러냈다. 정용화는 “(자작곡을 쓴다는 게) 부담스럽긴 하다. 어쨌든 자작곡은 의미가 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면 힘든 것도 배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마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우리

가 잘할 수 있는 음악은 아마도 우리가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자작곡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또 하고 싶은 음악과 사랑받는 음악의 간극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았다. 정용화는 “그게 정답이 없다. 사랑받는 노래가 뭐지 안다면 대박 날 텐데.(웃음)”라며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과 사랑받는 만한 음악의 접점을 찾는 게 숙제”라고 했다.

멤버 이준현은 또 직접 작사·작곡을 하다 보니 때론 ‘비인간적 면모’도 생겼다고 했다. “슬프다면 슬프고 직업병이면 직업병인데 어떤 극적인 감정이 생기면 그 순간을 늘 메모하게 되는 거예요. 기쁘거나 슬픈 순간이 닥치면 그 순간을 그대로 느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메모하고 녹음을 하게 됐어요.”

한편 씨엔블루의 새 앨범 ‘블루밍’은 팀명 씨엔블루(CNBLUE)와 꽃이 만개한다는 뜻의 ‘블루밍’(Blooming)이 결합한 단어다. 앨범 제목에 맞춰 봄에 어울리는 밝은 분위기의 곡들로 채워졌다.

타이틀 곡 ‘이렇게 예뻐나’는 핑키한 비트와 베이스 위에 화려한 브라스가 가미된 팝 록 곡이다.

정용화는 “꽃 피고 봄이 오는 느낌을 행진하는 느낌의 브라스 사운드로 살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4·13 총선 로고송

### ‘무조건 무조건이야~’

#### ‘뽕이교’ ‘사랑의 배터리’ 등 트로트 강세

트로트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이 4·13 총선에서 가장 많이 유포된 선거 로고송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작권)는 총선을 하루 앞두고 선거 로고송 저작권 승인 내역을 집계한 결과 ‘무조건’이 최다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위 20곡에는 박규운의 ‘뽕이교’,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장윤정의 ‘어머나’,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박현빈의 ‘빠리빠빠’, 박상철의 ‘뽕뽕’, 태진아의 ‘동반자’ 등 트로트가 강세를 띠었다. 또 정당 및 후보자들이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앨범 ‘프로듀스 101’의 주제곡인 ‘픽 미’(Pick Me)와 걸그룹 AOA의 ‘심쿵해’ 등 아이돌 음악을 다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픽 미’는 노래 가사와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로 로고송으로 제격이란 평가를 받았다.

한음저작권은 “트로트는 모든 연령층에 친숙하게 어필할 수 있고, 가사 내용이 유권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어 선거 로고송으로 많이 사용됐다”며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고자 아이돌 음악을 선거 로고송으로 채택하는 양상도 보였다”고 말했다.

한음저작권은 저작권자들의 요청에 따라 곡의 사용 빈도수와 이용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연예계 절친들 ‘수상한 휴가’ 떠난다

### KBS ‘위기탈출 넘버원’ 후속 내달 2일 첫 방영

조연우-이승준, 오민석-전석호, 최여진-이시영, 김승수-손진영, 류승수-조동혁까지, 연예계 절친들이 ‘수상한 휴가’를 떠난다.

오는 5월2일 ‘위기탈출 넘버원’ 후속으로 첫 방송하는 KBS 2TV ‘수상한 휴가’를 통해서다.

12일 KBS에 따르면 ‘수상한 휴가’는 남다른 인연으로 절친이 된 두 스타가 한팀이 돼 그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다.

출연자가 기획부터 참여하고 단순한 휴가가 아닌 리얼한 현지 체험을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KBS는 설명했다.

지난 1일 배우 조연우와 이승준이 인도네시아로 출발해 스타트를 끊었고, 드라마 ‘미생’에 함께 출연했던 오민석-전석호가 칠레에서 2000km 거리를 종단한다.

최여진과 이시영 두 여배우는 인도로 떠날 예정이다.

제작진은 “여행지에 출연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출연자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첫 방송은 5월 2일 오후 8시55분이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30 4.13 총선 특집 코토닝 A	00 특집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특집 모닝와이드 1~2부
7:00 4.13 총선 뉴스 특보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특별좌담 호남의 민심 무엇을 말했나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8:00 총선 특집 신문 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스쿨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20 총선 특집 시사 인사이트35	00 특별대담 4.13 총선 국민의 선택은?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40 4.13 총선 뉴스 특보	00 역사저널 그날 50 별빛가족 55 안녕 우리말(재)	00 명견만리	00 주말특별기획 <결혼계약>(재)	00 닥터 365 05 토크콘서트 화통
12:00 4.13 총선 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50 문화빅백 더 콘서트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특별기획 <결혼계약>(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10 총선 특집 뉴스특급	00 KBS네트워크특선 보물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20 수목미니시리즈(재) <good-bye 미스터블랙>	20 자연의 신비 슈퍼센스 55 TV 불로초 금지약(재)
2:30 총선 특집 직언직설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몬스터(재) 25 드림 주니어 스페셜 55 텔레몬스터(재)	00 열린 TV 시청자세상(재)
3:00	00 시사기획 창 55 튜닝생활채널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헬로킴지 싸이걸스 55 파워 배틀 와치카	00 3시 뉴스 브리핑
4:00 총선 특집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특집 다큐 <관광전쟁 13억의 마음을 잡아라>	00 TV 유치원 30 아육당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고향이 보인다 30 구르미 댄스왕
5:40 총선 특집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예술론 토포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00	00 6시 내고향 6000회 특집	00 KBS 글로벨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리었다
7:20 4.13 총선 특집 채널A 중립뉴스 1~2부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법상	50 일일 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불로초 금지약 20 일일 드라마 <마녀의 성>
8:00	25 일일연속극 <우리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특집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드라마 스페셜 <돌이아와 아저씨>
9:50 서민간부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00	00 특별대담 4.13 총선 <국민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00 공사창립 특별기획 <태양의 후예>	00 수목미니시리즈 <good-bye 미스터블랙>	
11:0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특집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우리가 들어줄게>	10 해피 투게더		10 자기야
12:30 천개의 비밀 에메이징 스토리(재)	30 넷워킹 문화특선 올림픽 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MBC 뉴스 24 4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5 아시아 프리즘 아름다운 비밀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에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자연의 색 중국 주자(겨우)> 06:10 세계의 눈 <극한의 바다, 알래스카 만> 07:00 지파이터스(재) 07:3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뽕뽕뽕 뽕뽕 08:00 뽕뽕뽕 유치원 1~3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굼디와 친구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달라졌어요	10:30 최고의 요리비결 <두부 바삭 볶음과 오징어 무 초말이> 11:00 세계테마기행(재) 11:40 한국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통일의 길 12:40 역사채널-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이말! 스페이스 정글 14:00 코코몽2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00 굼디와 친구들(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뽕뽕뽕 유치원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뽕뽕뽕 뽕뽕(재) 18:00 생방송 토티톡!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덜 짜게, 덜 맵게!>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거대한 역사를 품은 섬, 타이완 4 전쟁의 섬, 진먼도> 21:30 한국기행 <볼보람 불면, 살랑 4부 봄 맞바다 맞>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구석구석 먹고 살기>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23:50 역사채널 8(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4일(음 3월 8일 丙寅)

<b>子</b>	48년생 자기 외에 자신이 넘어 갈 수도 있다. 60년생 의지를 바탕으로 한 노력이 수반된다면 같은 분명이 열리는 법이다. 72년생 반복 속에서 기다리 잡힐 것이다. 84년생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라. 행운의 숫자 : 84, 58	<b>午</b>	42년생 평상시에 공을 들여 놓는다면 실제로 인했을 때 훨씬 매끄러울 것이다. 54년생 분담해서 이행한다면 일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66년생 마무리가 완벽해야만 한다. 78년생 마음을 놓는 데서 실수가 비롯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06, 72
<b>丑</b>	49년생 균형 감각과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하다. 61년생 노출되어 있는 것만으로 응대해서는 아니 된다. 73년생 긴박한 상황에서 천군만마처럼 나타나는 운이니 있다. 85년생 끈기있게 밀고 나가면 분명할 승산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3, 90	<b>未</b>	43년생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55년생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67년생 안정 국면으로 재편되리라. 79년생 바람직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19, 30
<b>寅</b>	50년생 외형과 내면의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62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성이 필요하다. 74년생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난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이리라. 86년생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강력하게 조치하라. 행운의 숫자 : 79, 25	<b>申</b>	44년생 오랜 습관의 벽에 갇혀있지 말고 과감히 뛰쳐나와야만 한다. 56년생 도움과 관심이 모여져서 길사가 꽃핀다. 68년생 새로운 타계책을 찾지 않으면 답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80년생 보고만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46, 76
<b>卯</b>	51년생 관점을 달리해 보자. 63년생 간접적인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75년생 주종과 경종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안배를 해야만 하느니라. 87년생 현실적이고 실리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말썽을 피운다. 행운의 숫자 : 35, 43	<b>酉</b>	45년생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져서 대사를 도모하는 형상이다. 57년생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69년생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 회생하여 기쁘겠다. 81년생 한계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88, 91
<b>辰</b>	40년생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52년생 결손하지 않는다면 총물이 빛어지면서 심기가 불면하리라. 64년생 시종일관 계속되어야만 한다. 76년생 관리에 철저해야 했다. 88년생 상실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4, 36	<b>戌</b>	46년생 중간 점검과 대조가 절실히 요망된다. 58년생 생기는 하지만 보잘 것 없으니 기대할 바 아니다. 70년생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면 쇠퇴하게 되리라. 82년생 파격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10, 93
<b>巳</b>	41년생 미리 밝히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크다. 53년생 기다리 잡히면 즉시 속도를 내는 것이 지혜롭다. 65년생 막연히 비교하지 말라. 77년생 기가 막힐 일이 생긴다. 89년생 행운의 운기가 느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7, 56	<b>亥</b>	47년생 부가적 기능이 주된 목적을 저해하는 번거로움이 보인다. 59년생 재물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71년생 단속만 잘 해도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있다. 83년생 기본 틀도 변형시켜야 하는 면모이다. 행운의 숫자 : 23, 8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 ☎010-9790-8237